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3면
국민이 만드는 내년 개정 교육과정 방향은?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7월 1일 목요일 (음 5월 22일) 제281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전라북도 자치경찰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 전북' 구현

전북도 자치경찰 출범식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임용장 수여 · 현판 제막
1호 시책 '아동안전 강화'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자치경찰 출범식을 개최하며, '전북 자치경찰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전북도청 공연장 전면광장에서 열린 이날 출범식에는 송하진 도지사,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청 최관호 기획조정관, 송지용 도의회 의장, 김승환 교육감, 문승우 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진교훈 전북경찰청장과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일선 경찰관 등이 참석했다.

출범식 1부 행사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경과보고, 출범사, 출범선언 퍼포먼스, 승진임용식,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2부 행사로 전북도자치경찰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거행했다.

특히, 이날 자치경찰 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4명에 대한 승진 임용장을 수여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 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 및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간 전북도는 자치경찰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구성 및 사무국 직원 배치 등 전면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자치경찰위원은 도민과 소통을 통해 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조정과 협업을 이끌 수 있도록 자치행정 및 치안행정 전문가,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출신 7명을 구성했다.

아울러, 자치경찰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간 협업 강화와 전북도민과의 소통·협력 증진 등을 통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추진을 위한 세부적인 과제를 실천할 계획이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을 마련하고 인권, 여성단체, 현장경찰관 등을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해 향후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한 전북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 중에서 '아동 안전 강화대책'을 제1호 시책으로 선정하고,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향후 자치경찰 시대에 맞는 마스터플랜을 준비한다.

송하진 지사는 "지방자치의 효시인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며 "초기 시행에 있어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지난 30년간의 지방자치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조기 정착시켜 도민이 원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창룡 경찰청장은 "민주분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전북의 자치경찰은 도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친절한 치안서비스, 지역에 특화된 고품질 경찰활동을 제공하길 바라고, 경찰청에서도 전북형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전북도 자치경찰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자치경찰제 도입은 진정한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큰 의미가 있다. 전북도가 선도적으로 주민 친화적 자치경찰제를 정착 시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교훈 전북경찰청장은 "전북경찰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생각하고,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며 "전북경찰청 역시 전북도 자치경찰을 든든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출범선언을 통해 "보다 안전한 전북, 더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듣고 더 열심히 뛰는 자치경찰이 될 것이다"라며 "더 가깝게 다가서고, 더 친근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출범의지를 밝혔다.

/유호상 기자

2학기 전면등교 지속

도교육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따라
3단계는 초등 3~6학년 4/3 · 중고 3/2 이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지난달 30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에 따른 2학기 전면등교 지속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변경 된 4단계 체제 적용시기는 오는 8월 1일부터다.

도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는 6월 현재 유·초·중·고 100% 전면등교를 시행 중이다.

이날 도교육청은 2학기 전면등교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는 평등교육, 책임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중심 학교 지원이라는 기본방향을 밝혔다.

2학기 전면등교 지속 방안은 변경된 2단계까지는 전면등교다. 또 3단계는 초등3~6학년 4/3, 중·고 3/2 이내에서 전면등교가 가능하다.

특히, 3단계까지는 등교수업이 원칙으로, 가능 학교 기준은 *초·중·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전체 학생 수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읍·면 단위 농산어촌 학교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면등교 시행으로 평등교육 및 책임교육을 구현하고, 학교 삶을 중심으로 배움과 삶이 하나되는 참학력 신장으로 우리 지역의 미래 인재 육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격전환 최소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되, 학교 전체를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중앙-지방 협력 강화 '물꼬'

시도지사협,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 국회 통과 "환영"
지방자치 정책 논의 '대통령-시도지사 정례회의체' 신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지난달 30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안'은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대통령, 시·도지사, 주요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 주요 정책 등을 논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송하진 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중앙지방협력회법은 중앙과 지방 간 협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례회의체가 신설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모여 지방자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던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장인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무총리와 공동부의장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돼 지방의 국정참여 확대와 함께, 시도지사협의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송하진 회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으로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다"고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해 12월에는 32년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자치분권의 새 시대를 여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으며, 국민의정부 이후 20년 동안 논의만 무성한 채 현실로 이뤄지지 못했던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등 개정안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중앙지방협력회의법 국회 통과로 내년 상반기부터는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협력의 공식적 채널이 마련될 전망이다. /유호상 기자

전주발효식품엑스포 '올해도 온라인으로 진행'

2021년 제19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온라인을 활용한 판로 개척 가능성을 더욱 키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대비하겠다는 바이오진흥원의 의지도 포함됐다.

특히 바이오진흥원 올해는 모바일 기반의 홈페이지를 구축, 온라인 상으로 추진되는 엑스포답게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도내 식품기업 판매증진을 위해 e-post 우체국쇼핑, 11번가, 쿠팡 등에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IFFE)관을 별도로 구축해 온라인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에는 온라인 시장에 진입한 도내 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배송비 및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패키지 지원을 시작했고, 홈쇼핑 등 라이브커머스 지원기업을 선정해 온라인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라인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우체국 전자상거래센터와 함께 제품디자인 개선, 상세페이지 제작과 온라인 입점 및 판매까지 one-stop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영세기업을 실제 온라인몰에 입점시켜 판매까지 연계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e-엑스포의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바이오진흥원 김동수 원장은 "올해 제19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단순히 판매 실적을 위한 지원보다는 기업의 판매환경을 변화시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 농식품산업과 박우석 과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가능성을 찾은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해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IFFE)가 지역 식품산업 발전을 이끌고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전주매일이 앞장서겠습니다

전주매일 캠페인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가지

일반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 하지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자료: 질병관리청